

■ KOEMA 消息 ■

「파리 국제전 참관 및 수출촉진단」파견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유럽지역의 발전, 배전등 첨단 중전기기 제품을 전시하는 유럽 최대의 중전기기 전문 전시회인 「파리 전기 및 자동화 설비박람회 (ELEC)」 참관 및 중전기기 제품의 유망 수출 시장인 동남아 지역에 대한 수출촉진 활동을 벌이기 위해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프랑스 파리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필리핀 등에 수출 촉진단을 파견한다.

진흥회 韓圭完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LG산전(주), 선도전기(주), 삼화기연(주) 등 국내 주요 중전기기 업체 임직원 및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이번 시찰단은 유럽지역 중전기기 전문 전시회인 「ELEC」 전시회를 참관, 첨단 전기공업 제품과 세계 기술흐름 등을 파악할 기회를 갖는다.

특히, 이번 파견 기간중에는 최근 고도 경제성장과 급속한 공업화로 대규모, 전기설비 프로젝트 및 기자개 수주가 예상되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필리핀을 방문, 현지 업체와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며 3개국의 전력청을 각각 방문하여 중장기 전원개발 계획 및 전력기자재 수급현황과 입찰구매 계획 등을 파악하고 우리 업체의 프로젝트 진출시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전기관련 단체와 양국간 교류확대 및 협력 방안과 정보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갖는다.

電機產業 인터넷 서비스 실시

韓國電機工業振興會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전기산업은 물론 우리나라 중전기기 업체의 기업 이미지와 제품 홍보등 각종 정보를 해외 바이어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전기산업 홈 페이지」를 개설·운영한다.

KOEMA(진흥회 영문 약칭)로 사용하게 될 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게 될 정보 서비스는 진흥회 일반현황, 주요사업 소개 및 회원사 현황, 생산제품별 업체 현황과 전기산업 현황 등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이번 홈페이지 개설은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세계적 추세이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바아이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홍보 효과가 커질 것임에 따라 앞으로 중전기기 업체도 인터넷을 수출 판로 개척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업계의 수출확대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개설하게 됐다.

전기진흥회는 이번 홈페이지 개설에 따라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에 더욱 다양하고 내실있는 전기산업을 소개하기 위하여 회원사를 중심으로 개별업체별 홍보 자료를 접수, 업체별 기업 이미지와 신제품, 기술동향등의 정보를 상세히 수록하여 KOEMA 홈페이지가 중전기기 산업의 수출장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단체 홈페이지 운영시 한국의 주요 중전기기 업체의 모든 정보를 담게 되어 많은 유저들의 관심과 실질적 구매자에 유용한 Site로 각광 받을 수 있고, 실거래위주의 제품을 소개함으로써 업계의 수출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전자우편을 통해 해외 각 지역과 원활한 접촉을 할 수 있어 통신비용 절감과 사무 능률화를 꾀할 수 있으며, 정보화 시대에 앞서가는 회사로서의 기업 이미지를 국내외에 과시할 수 있는 효과등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진흥회가 홈페이지 전문 제작사인 ‘혁성전자’를 통해 제작한 KOEMA의 웹 사이트 주소는 <http://WWW.KOEMA.ORG>이다.

버린종이 휴지되고 아민종이 자원된다